

김지은 개인전  
**Capricious Land**  
변덕스러운 땅



일정: 2016.8.30(화) - 10.28(금)

장소: 갤러리 시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6길 20)

문의: T. 549-3031 F. 549-3032

mail@gallerysimon.com www.gallerysimon.com

보도자료: webhard ID: gallerysimon PW: simon (guest 폴더 내 김지은개인전 폴더)

갤러리 시몬은 거주환경을 관찰하고 도시풍경을 제도적으로 성찰하며 읽어내는 작가 김지은의 개인전 “Capricious Land(변덕스러운 땅)”를 8월 30일부터 10월 28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건축이라는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이면의 힘과 구조를 가시화하고 우리의 일상공간이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조립식 창고 같은 가건물들이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풍경은 생활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이러한 가건물이 들어선 땅은 변덕스러운 자본의 추이에 따라 용도가 바뀌며 개발이 일어나기도 하고 폐허가 되기도 한다. 작가는 변덕스러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회화에 적용시켜 개발의 언어가 회화가 되고 회화의 언어가 폐허가 되는 순간을 포착하고자 한다. 섹션 1은 콘크리트에 관한 시리즈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찾아볼 수 있지만 크게 인지하고 있지 않는 물질인 콘크리트를 관찰과 사색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둘러싼 정치학과 의미를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우리 삶을 담은 그릇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도록 유도한다. 섹션 2는 거물대리, 신원동 등 도시외곽의 농촌지역에 공장, 아파트, 컨테이너가 들어서면서 땅의 용도가 바뀌는 풍경을 보여준다.

서울대 서양화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 미국 크랜브룩 아카데미 오브 아트와 스코히건 회화 조각 학교를 졸업한 김지은 작가는 암스테르담 갤러리 론 만도스 ‘코리안 컨템포러리’전(2015), 두산 연강예술상(2014), 삼성미술관 리움 “아트 스펙트럼”(2012), 홍콩 에스파스 루이뷔통 ‘우마드 코드’전(2012) 등 국내외 유수의 미술관에서 국제적인 평가와 더불어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